

“전·현직 두 분께 感謝와 激勵를”

8일, 포천향교 전교 이·취임식

8일 포천향교 최종규 전임 전교의 이임식과 양재창 신임 전교의 취임식이 유림회관에서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향교재단 최재성 이사장, 성균관 고문 남상섭, 전학 조병일, 박운국 포천시장, 이철우 국회의원 등과 유림 200여명이 참석해 이임의 아쉬움과 취임의 축하를 건넸다. 우선 현재의 포천유림회관 건물 매입과 운영에 큰 공로를 세우고 포천향교지를 발행해 포천

향교의 역사를 정리한 최종규 전 전교에게 향교 임직원들이 전하는 감사패와 공로패 등이 전달됐다.

최종규 전 전교는 이임사를 통해 “6년이라는 세월을 향교에서 보내면서 없는 자료를 모으다 포천향교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며 “비록 포천향교 전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포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종규 전 전교의 '사례요결' 발간식도

새로 취임한 양재창 제25대 포천향교 전교는 취임사를 통해 “유교는 우리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우리의 지주”라며 “유림부터 공자를 배우고, 유교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양 전교는 또 △잡차 심각해지는 포천향교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완급과 경중을 가라 지출해 경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갈 것 △원로 선배들과 참신한 후배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화합으로 이끌어갈 것 △향교의 문턱을 낮춰 열린 향교로 만들어 나갈 것 등 세 가지를 집중 실천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임하는 최종규 전임 전교가 심혈을 기울여 펴낸 '사례요결(四禮要訣)' 발간식도 겸해 이뤄졌다.

'사례요결(四禮要訣)'은 사례편람 중심의 제1편, 가정례준칙을 기술한 제2편, 지나온 사례나 현행 사례를 풀이해 설명한 제3편, 참고문헌을 수록한 제4편과 단어를 풀이한 제5편 등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최 전임 전교는 발간사를 통해 “예의가 사라짐으로 해서 작

금의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통탄한다”며 “예의근본은 사례편람에 있고 현대인이 행해야 할 예의절차를 수록해 생활예절에 참고로 하고자 이 책을 편찬했다”고 편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성인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들도 볼 수 있도록 엮었으며 관혼상제시 한번씩 들춰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규 전임 전교가 編著한 <사례요결(四禮要訣)>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2004년 7월 8일 포천향교 임원들이 최종규 전임 전교(왼쪽 두번째)와 양재창 신임 전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문화칼럼

진정한 自主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文化의 자주', '價値의 자주'가 先行돼야



경기북부시대 상임집행위원 김창호

나는 이한동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가 되기 전까지, 포천문인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기 전까지 전북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청년작가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이미 서해타임즈, 익산저널, 황룡문화 등의 매체에 원고료와 게재료를 받으며 글을 쓰는 작가였고, 최연소로 천리안 청년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피선된 논객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1997년 대선과정 속에서 20대에 남양주시장이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한동 의원의 캠프에 합류해 PC통신망 go handong의 운영자와 정책비서로 활동했다. 그 당시 신세대 작가로서 싸이버 공간의 논객으로서 나의 가치는 진보세력의 대표적 논객인 진중권씨나 유시민 의원보다 좋았다.

나도 포천문인협회 사무국장직을 맡지 않아 서류 문치와 씨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국회의원을 하거나 최고의 원고료를 받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면담 최익현 선생님과 백범 김구 선생님을 꼭 읽어야 한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있다.

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표에도 없는 포천문인협회 사무국장직을 맡았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웠던 30세 전후의 인생 계획표는 남양주시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시장과 군수와 차별화해서 추진할 일로 첫째 “시대를 이파하고 세속을 개탄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옳은 것을 찬미하고 잘못을 풍자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려는 뜻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라고 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론(詩論)의 정신을 이어 학술제를 개최하고 다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인문학자와 작가를 찾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남양주문화의 정체성부터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 봉선사 호수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자리 “라페스티발과 함께 하는 연꽃 축제”를 개최해 스님들의 목탁소리와 함께 리듬을 맞추어 남양주를 ‘동서고금(東序古金)의 문화 용광로’로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 남양주시의 예술가들을 모아 ‘예술가 스스로부터 예술가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꿈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다. 또한 과거의 인물을 현대에 재조명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되어지는 세종대왕도 그를 그린 화가, 그의 업적을 노래한 음악가, 업적을 찬미한 시인, 일대기를 쓴 소설가와 시나리오 작가, 대역이 되어 주는 배우가 없었다면 우리 주변의 춘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가장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며, 고귀한 신분과 직업에 맞는 대우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남양주시에 실제 거주하며 작품과 글을 발표하는 65세 이상 되는 원로작가를 찾아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 원로의 삶과 경륜은 미래 세대의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축적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고 예산을 아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원로작가를 잘 예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원로작가와 지식인들은 남양주에서 살 것이며 남양주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가치와 에너지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했다.

넷째 예술가들이 ‘윤허 스님’을 소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만들고, 무용을 공연하고, 연주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작품을 대한민국의 방방곳곳은 물론 세계무대에 발표하는 것이었다. 윤허 스님은 평안북도 정주출신의 독립운동가로 남과 북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아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인간중중과 평화사상을 가졌기에 세계인으로 부터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자주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의 자주’, ‘가치의 자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희 장군이 강동6주를 회복한 것처럼 군사력과 경제력 아닌 문화의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발해의 고토를 찾는 것이었다. 지난 1세기는 갈등과 충돌의 제국주의 문명이 지배했다면 미래는 상생과 평화의 흥이문명시대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게 하고 싶었다. 중학교 2학년 때...

(http://cafe.daum.net/bestbukbu)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03)



포천의 물고기

남하한다.

저수지는 제일 큰 산정호(26ha)와 방정지(35.5ha)가 있으며 가산발발지(4ha), 쌍목(2ha), 황새목이 지(5.1ha), 종리지(9.5ha), 울미방죽(2ha), 심곡지(3.3ha), 강포리지(10ha), 가산지(15.9ha) 추동지(12ha), 벌말각지(1ha), 동교리지(4ha) 등이 있다

내 고향 포천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는 뱀장어, 버들치, 피라미, 끄리, 긴물개, 쉬리, 돌고기, 포천천은 소읍에서 발원하여 포천 신읍동, 신북면을 복진한 후 영종면에서 영평천과 합류하고 왕숙천 상류는 화현면에서 발원하여 남양주시 진접면에서

자개, 대농쟁이, 농동자개, 통가리, 메기, 미유기, 송사리, 가물치, 드렁허리, 독종개, 격지, 쏘가리, 버들붕어, 동사리, 검정망둑, 밑어 등이 있는데 모래무지, 참종개, 붕어, 메기, 동사리, 버들치, 뱀장어, 피라미, 끄리 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호종으로는 ①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한탄강, 영평천 서식) ②꾸구리, 돌상어(신북면에서 채취된 어종으로 희귀종) ③밀자개, 한탄강에서 채취(영북면)된 바 있는데 함부로 잡아서 멸종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희귀종이다.

포천시 관내에서 비교적 자원이 풍부해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어종은 버들치 외 20종이다. 산 채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일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산정호수 등 유원지 음식점에서 어종 몇 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교재용 물고기 사육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광릉수목원 연못 등에서 몇 어종을 볼 정도이다. 행정당국이나 교육기관에서는 보호를 요하는 어름치, 꾸구리, 밀자개 등을 교육 계동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 절실한 것은 포천8경이나 10경을 염시로 그려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작가회 등에서 ‘희귀한 새’, ‘보호를 요하는 어종’ 등을 사진으로 찍어 관광엽서로 제작하거나 고향사랑의 자료나 전시물로 예술작품화 하는 것도 포천 내고향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마을 이장이나 청소년회, 4H구락부를 통해 희귀조, 희귀어류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다른 지방의 예도 받아들이는 내 고향 포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 필자연락처 : 02)932-2434

<韓國人의 선비 精神> 발간

松園 李孝鐘八十記念論集

한국인의 선비정신을 알기 쉽게 서술한 <韓國人의 선비 精神>(포천사랑토연구소)이 교육계 44년간 봉직해온 경험과 사학(史學)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리효종 翁에 의해 출간과 회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이 책의 서문에서 “어른이 어른이 아닌 것은 어른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不爲也非不能也)”라는 맹자의 말을 빌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나라 어른들이 먼저 스스로를 존경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이 책은 “이 사실을 보고 뼈아프게 느껴 지난 날 사대부(士大夫-선비)들이 살아온 모습을 되찾아 다시 예의동방의 영광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필자가 읽어온 여러 가지 서적의 내용과 심유여론 동안 각계 각층을 누비며 강인한 기록을 추려 한데 묶어 출간하게 됐다”고 출간이유를 밝혔다.

이 책은 제1편 선비정신과 제2

편 우리 선비의 삶으로 구성됐으며 제1편에는 ▶선비란 무엇인가 ▶선비정신과 민족성 ▶선비정신의 형성과정 ▶선비정신의 전개 ▶선비의 수련 ▶선비의 조건 ▶선비문화의 윤치 ▶선비의 의례 ▶국난과 선비정신의 발원 ▶한말-일제하의 선비정신 ▶선비정신의 성찰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됐다. 또 제2편에는 정도전, 황희, 조광조, 이황, 조식, 유성룡, 조헌, 이원익, 김장생, 이항복, 김상헌, 허목, 송시열, 채제공, 정약용, 이항노, 최익현, 유인석 등 20명의 선비들의 삶을 밝혀주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종토 매각 입찰 공고

- 1.매각방법 : 일반공개 경쟁 입찰
- 2.매각 물건(종토)

번호	종토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	우금리	702-2	전	793㎡	
2	우금리	702-6	전	1075㎡	
3	가산면 금현리	281-4	답	319㎡	
4	가산면 금현리	283	답	592㎡	
5	가산면 금현리	281-8, 283-2	답	1066㎡	

3. 입찰 및 등록장소 :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326 아산이씨대종회 사무소

4.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1) 등록 일 : 2004년 7월21일 12:00
- 2) 입찰일시 : 2004년 7월21일 15:00

5. 입찰등록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무통장입금증(입찰보증금)
- 3)보증금 반환용통장 사본
- 4)본인인장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1) 예정가 이상으로 응찰자
- 2) 동액 최고가 2인 이상 일시는 추천으로 결정 (종토처분 소위원회에서)

7.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입찰등록을 필한자.

8. 입찰보증금

물건 번호별로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입찰등록전까지 아산이씨대종회통장 (225014-52-154971)에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 반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용 통장으로 2004. 7. 22. 까지 반환한다.

10. 입찰무효

- 1) 입찰서에 물건번호, 입찰금액, 주소성명 날인등 주요사항의 누락이나 오기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 2)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10%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11. 계약 체결

- 1)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매매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 3)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산이씨 대종회로 귀속한다.

12. 매수 잔금 납부 : 계약 체결 후3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13. 재산 명도일

- 1)잔금입금과 동시

14. 입찰유의사항

- 1) 현장설명은 2004.7.21. 13:00 대종회 사무소에서 한다.
- 2) 종토매도는 현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법적 행정적인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대종회에서는 책임이 없음.
- 3) 응찰서식은 대종회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음
-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례기준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5) 자세한 문의는 전화 544-1993 H.P:011-9921-7952 번으로 문의바람.

2004. 7. 10

아산이씨대종회장